

상황인지란 무엇인가?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화요일의 늦은밤

주중 가장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거실에 있는 소파에 잠시 앉아 있다.

그리고 문득 ‘논문심사의뢰’와 그 논문파일을 열어본
‘기억’을 떠올린다.

첨부파일로 보내져 온 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논문
과 그 논문을 열어본 순간의 ‘기억’을 떠올린다.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황급히 창을
닫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왜 그냥 닫은 것도 아니고 황 급 히 닫았을까요?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배움의 공동체’ 논문을 투고했을 때 편집간사가
나에게 이런 귀뜸을 해주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선생님 논문의 심사자 중의 한 분이 저한테 이렇
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좋은 논문 심
사 맡겨주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행운(?)’이 영 오지 않는 것일
까? ㅠㅠ

뭔가 신나고 재미있게 논문심사를 할 수 있는 ‘행
운’이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아니 이런 ‘공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논문심사를 나에게 의뢰한 편집간사에게 연락을 취해서 논문심사를 이틀 정도 말미를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겠다.

헉 근데 ㅈㅈ

휴대폰을 차에 두고 내린 것 같다.

나는 이 때 어떤 problem definer 그리고 problem solver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라면?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나는 재빨리 서재로 가 랩탑을 가져와서 다시 소파에 앉아 그 Artifact를 켜고 나의 mail account에 접속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편집간사의 이름을 기억에서 떠올리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artifact*에서 검색한다.

눈치챘는가?

나는 방금 distributed cognition을 실천하지 않았던가?

하나는 기억에서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고 나머지 하나는 artifact에게 전화번호검색을 맡긴다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그녀의 전화번호는 010-2091-3127이다
지금 전화를 하면 너무 늦겠지 음..

Whenever there is a task, there is a whole task.
그래 문자를 보내자.....

아 근데 휴대폰이 차 안에 있는데 ㅠㅠ
휴대폰이야 내일 아침 운동 갔다 오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

곧 바로 별 망설임 없이 다음 사이트에 접속한다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란?

로그인을 하고

010 번호는 보고

2091 번호는 기억하고

3127 번호는 드래그 해서 창에 갖다 붙인다.

나는 눈으로 보고, 기억하고 artifact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훌륭하게 입력한다.

나는 이 장면에서도 Situated cognition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인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머릿속에 닫혀 있거나 미리 정해져 있는 인지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피부를 넘어서’ 늘 개인 주위의 매체와 자원과 상호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인 것이다(박동섭, 2008b).

Distributed (Situated)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이러한 나의 일상경험을 심리학은 얼마나 생생하게 다루어 왔고 문제시 해왔는가?

심리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오히려 인간의 아주 특수한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심리학이 ‘사람’을 위한 학문이 되기 위해선 심리학 실험실만 고집하지 말고 이러한 저잣거리의 사람들의 일상에 눈길을 줘야 하지 않을까?



Distributed (Situating) Cognition이 란?(상황 속에 살고 있는 개인)

심리학 실험실과 학교는 오로지 개인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 한다.

More specifically, 실험실과 학교는 머리 속만을 사용하도록 '바깥'이 미리 꾸며져 있다.

허나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 특권화된(privileged) 행위 자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특수한 Situating Cognition이 아닌가?

말을 바꾸면 그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마을 인지(local cognition)'가 아니던가?

과학성, 객관성이란 무엇인가?(교재 P111)

주자(朱子)의 주석에는 마을의 선한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 또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필시 구합(苟合, 迎合)이 있으며, 반대로 마을의 불선한 사람들이 미워하고 마을의 선한 사람들 또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行)에 실(實)이 없다 하였습니다.

구합은 정견 없이 남을 추수(追隨)함이며, 무실(無實)은 선자(善者)의 편이든 불선자의 편이든 자기의 입장을 갖지 못함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견이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없고 그 역(逆)도 또한 참이고 보면, ‘논어’의 이 다이얼로그(dialogue)가 우리에게 유별난 의미를 갖는 까닭은, 타협과 기회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면서 더욱 중요하게는 파당성(派黨性: prateilchkeit)에 대한 조명과 지지라는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